

2022

가정추모예배

예식사 인도자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000님의 ()주기 추모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목 도 시편 16:8 인도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 도 인도자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고인을 추모하며 주께 예배하오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고인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계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고인이 가지셨던 생전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오니, 예수님 외에는 믿고 따를 이가 없음을
기억하며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가족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동역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다함께

1.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 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 합니다
2. 괴롭과 죄가 있는 곳 나비룩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 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3.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 옵니다
4.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 하오니 내 주여 인도 하소서
5. 내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후렴) 내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 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옵니다

말씀봉독 요한복음 14:1-3 다함께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믿을 게 많았습니다. 사람도 믿고, 돈도 믿고, 친구도 믿었습니다. 부모도 믿고 남편, 아내, 자녀를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떠나고 배우자가 떠나고 친구가 사라지면 우리는 슬퍼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언제 가는 사라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한 누구와도 영원히 함께 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되면 모두가 헤어집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의지해야 할 대상임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변치 않으시고 죽음이 없는 분이므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도 천국 거처를 예비해 놓으셔서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은 부모를 잃은 고아나 소녀 가장 또는 일찍 식구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사는 사람을 동정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동정해야 할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언젠간 영원한 고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은 후에도 다시 만날 날이 기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000님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000님은 주님이 마련하신 거처에서 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안부를 물으며 반갑게 서로를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000님이 천국에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 000님의 기일을 소망 가운데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해 나가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000님께 서 하늘에서 바라고 계신 일이기도 합니다.

000님의 추모예배를 드리는 오늘, 고인의 믿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믿음을 새롭게 하며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살고 죽는 자들이 되어,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 속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2.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3.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민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4.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뵈올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엿이 바로 서리라

(후렴) 주 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